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와
모든 것을 이어받는 시대의 이상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성경: 요17:17, 행26:16-19

- I. 믿는 이들의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 삼일 하나님 안에 있다—요17:14-21.
- A. 진리는 삼일 하나님의 실재이다—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고(17절), 아들 그리스도도 진리이시고(14:6상), 그 영이 진리이시다(요일5:6, 요14:17).
- B. 진리는 우리 속으로 방영된 하늘에 속한, 영적 이상이다—행26:16-19.
1. 진리를 알려면 우리는 먼저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사실들을 알아야 한다. 그럴 때 사실들의 이상을 우리 속으로 방영해 주는 빛이 있게 된다—엡1:17-18.
 2. 모든 신성한 사실들은 말씀 안에 담겨 있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그 영께서 말씀 안에 있는 사실들을 비추실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갖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요8:32.
- C.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17:17.
1. 거룩하게 되는 것(엡5:26, 살전5:23)은 위치적으로(마23:17, 19)뿐만 아니라 기질적으로(롬 6:19, 22) 세상과 세상의 강탈로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으로 분별되는 것이다.
 2.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은 믿는 이들 안에서 일하여 그들을 세상적인 모든 것로부터 분별한다. 이것이 진리, 곧 실재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요17:17.
 3. 진리가 우리를 모든 부정적인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요소로 우리를 적신다—8:32, 17:17, 엡5:26.
- D. 우리는 생명의 원칙들을 따름으로 우리 안으로 주입된 진리이신 삼일 하나님을 갖도록 매일 말씀으로 나아오는 연습을 해야 한다.
1. 우리는 신성한 빛이 우리 속을 비추고 신성한 생명이 공급하도록 반드시 우리의 온 존재를 주님께 열어야 한다. 변화를 가장 많이 체험하는 사람은 주님께 절대적으로 여는 사람이다—시119:105, 잠20:27, 시139:23-24.
 2.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추구해야 한다—시 119:2, 막12:30.
 3.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들을 처리해야 한다—행24:16, 딤후1:3상, 요일1:9, 참조 겔1:22, 26.
 4.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서 겸손하여 우리의 자아—자만과 자기 확신—를 제쳐놓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얻도록 그분을 앙망해야 한다—사66:1-2, 벧전5:5.
 5.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며, 우리의 온 존재를 사용하여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엡6:17-18, 시119:15-16, 참조 레11:3.
- E. 진리의 말씀을 통한 거룩하게 하심은 분열의 악을 처리함으로 하나를 가져온다.
1. 온 세상이 분열의 질병을 앓고 있다. 자아 안에는 분열의 요인들—세상적임, 야심, 자기를 높임, 의견들, 관념들—이 있다—참조 요일2:14-15, 요삼3-4, 9, 계2:12, 17, 3:14, 18.

2.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서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매일 우리는 분열적인 우리의 자아로부터 나와 삼일 하나님의 하나 안으로 이사해야 한다—요17:21, 8:31, 15:7, 엡3:16-17.
3.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접촉하고 그 영계서 우리를 매일 접촉하시도록 허락해 드린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는 우리의 낡은 거처인 우리 자신에게서 나와 우리의 새로운 거처인 삼일 하나님 안으로 이사할 것이다—시90:1.
4. 우리가 살아 있는 말씀을 만짐으로 매일 아침 주님을 접촉하여 우리 속으로 신성한 실재가 주입된다면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의 요인들은 죽음에 넘겨지고 우리는 삼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

II. 우리의 한 마음 한 뜻은 시대의 사역을 통해 모든 것을 이어받는 시대의 이상 안에 있다—행26:19, 1:14, 롬15:6, 딤후1:12, 행20:24.

- A.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특별한 회복과 일이 그 시대의 사역이다—참조 왕하 2:1-18.
- B.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이상이 있고, 우리는 그 시대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각 시대에 그분이 사람에게 오직 한 이상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한다—행26:19, 엡1:17; 3:9.
- C. 우리의 이상은 그 시대와 맞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려면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창세기에 있는 아담의 첫 번째 이상으로부터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궁극적인 이상에까지 이르는 것이어야 한다—창2:9, 계21:2.
- D. 주님께서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모든 이상들의 궁극적인 완결인 새 예루살렘이다. 이 궁극적인 완결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9-10절.
- E.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오직 한 이상, 모든 것을 이어받은 최선의 이상,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이상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이 없으면 한 마음 한 뜻이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히 행하게 된다—잠29:18상.
- F. 역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 우리는 그들 모두가 그들의 시대에 맞는 이상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행15:35-39, 18:24-25, 19:1-2, 21:18-21.
 1. 과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으켜졌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 한 뜻 안에 있을 수 없었던 것은 각 사람이 붙잡고 있었던 이상이 서로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본 이상의 수준이 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에는 한 마음 한 뜻이 없었다.
 2.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작은 체험과 이상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더 보기를 자원하지 않고, 더 본 사람들을 틀렸다고 여긴다.
 3. 성령께서 전진하고 계실 때, 어떤 사람들은 따르기로 결정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들은 머물기로 결정한다. 성령께서 전진하실수록 그분을 따르는 이들은 극소수이다.
- G. 우리는 사도들의 유일한 가르침에 따른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 아래 있으므로 그분의 한 증거인 한 몸을 산출하는 그분의 한 움직임을 위한 하나님의 한 사역 안에서 가르침(고전4:17, 7:17, 16:1, 행2:42, 롬16:17, 딤후1:3-4, 6:3, 엡 4:13-14), 실행(고전11:16, 14:33하-34), 생각(빌2:2, 4:2, 고전1:10), 말(롬15:6), 본질, 외양, 표현(계1:11-12)에 있어서 하나일 수 있다.